

광주 최초 여의사 현덕신 삶을 조명하다

조선대 이동순교수 '현덕신' 펴내 이화학당 출신 日 동경으로 유학 독립운동가...여성 교육에 앞장



광주 최초 여의사, 독립운동가, 유아교육과 여성교육에 앞장... 현덕신(1896-1963)은 이화학당 출신 최초 광주 여성 의료인이다.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석아(石峯) 최원순(1896-1936)이 그의 남편이다. 현덕신과 최원순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광주의 교육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광주 현덕신병원 앞에서(1928년경). 앞줄 오른쪽에 현덕신과 아들 상욱이 있다.



현덕신병원에서 진료 중인 현덕신.

현덕신의 삶을 조명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가 펴낸 '조선의 여성을 위해 의사가 된 독립운동가 현덕신' (이화학당출판)은 조국과 여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담고 있다.

이 교수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지난해 봄 이화학당에서 현덕신 선생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서였다. 이화학당은 과거에 현덕신이 근무했던 동대문부인병원을 계승한 병원이다.

이 교수는 "당시 유경하 의료원장님은 현덕신 선생님의 후배로서 부끄럽다는 얘기와 더불어 평전을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특별히 현덕신의 생애를 복원하여 역사적인 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집필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덕신에 대해 "몇 안 되는 조선의 여성 의사로 사회적 책무를 등에 짊어진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 여걸"이라고 명료하게 덧붙였다.

향해동 용강에서 태어난 현덕신은 소학교 졸업 후 오빠를 따라 평양으로 이사한다. 이듬해 이화학당에 입학하지만 이후 1916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여자외국전문학교에 입학한다.

현덕신은 일본 유학시절 암울한 식민지 조국 현실을 절감하고 조국 독립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자각한다. 1919년 1월 독립자금 40원을 김마리아를 통해 2·8독립선언 준비금으로 건낸다. 그해 2월 8일에는 일본 도쿄 조선 YMCA회관에서 개최

올린다.

그러나 최원순은 일제에 의한 투옥과 고초로 폐병을 얻어 1928년 고향인 광주로 내려온다. 광주 전면에 석야정을 짓고 요양하며 민초들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에 따라 현덕신은 1927년 10월 광주군 수기옥정 350번지에 현덕신병원을 개원한다. 그가 광주에서 환자를 살피는 것 외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광주지회를 설립한 것이었다. 독립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는 과업이었다. 아울러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장을 맡아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만주 조난동포구제 광주협회'를 결성해 김필례를 비롯해 최영균, 김용환, 최현숙과 집행위원으로 피란동포구호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광주에 신생유치원과 신생보육학교를 설립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독립운동을 했던 과감함과 여성운동을 펼쳤던 평등의 정신으로 유아를 교육하는 것이 조선의 미래를 여는 것으로 생각한 것. 1951년에는 신생보육학교를 개교해 교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 교수는 "현덕신의 삶을 고스란히 살려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려고 애썼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로 부족한데 변명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원순과 현덕신은 조선대 미대 학장을 지낸 최영훈 화백의 조부모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간-생명력'

매화 피어나고 피어나다

강남구 초대전, 3월 11일까지 웨어갤러리 블루

봄을 재촉하는 화사한 매화를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 초대전이 오는 3월 11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웨어갤러리 블루에서 열린다.

'피어나고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신작 매화 작품과 더불어 해바라기, 동백, 소나무 등의 작품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의 50번째 개인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그의 대표적인 '공간-생명력' 연작은 이제 막 봉우리를 뚫기 시작하거나,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와 함께 자유롭게 뻗어나간 고목의 줄기들이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화면 앞쪽의 매화와 형체를 감추고 흐릿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화면 뒷쪽 봉우리들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공간감을 부여해 마치 3D 입체화면같은 느낌을 준다.

작가는 이끼가 낀 거친 나무의 표피에서 느낄 수 있는 세월의 풍파와 연륜을 거칠고 투박한 선들로 표현하고, 화폭에 쌓아올린 매화 꽃 한송이 한송이를 통해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만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매화가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는 강 작가는 "아름답다는 것 이외에도 웬지 모를 애잔함도 전해주는 남도매화는 그 생김이 기개가 있어 힘차게 솟은 가지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 있는 삶을 기대해 본다"며 "코로나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봄날 같은,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굳건한 그 힘의 미학을 담고자 했다"고 말한다.

강남구 작가는 700여회 단체·초대전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초대작가다. 한국전업작가회, 구상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초등3~중학 대상 3월10일까지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 활동할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5·18의 숭고한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직한 연주단체다. 신입단원은 광주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분야는 바이올린(22명), 비올라(6명), 첼로(10명), 콘트라베이스(4명) 등이다. 5·18민주유공자 후손을 1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를 2순위, 관내 초·중학생을 3순위로 선정하

며 입단시 1·2 순위 대상자와 콘트라베이스 외의 약기는 개인 지참해야한다.

오케스트라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중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마감은 오는 3월10일 오후 6시까지로 다음 카페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모집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메일(5.18orch@hanmil.net)로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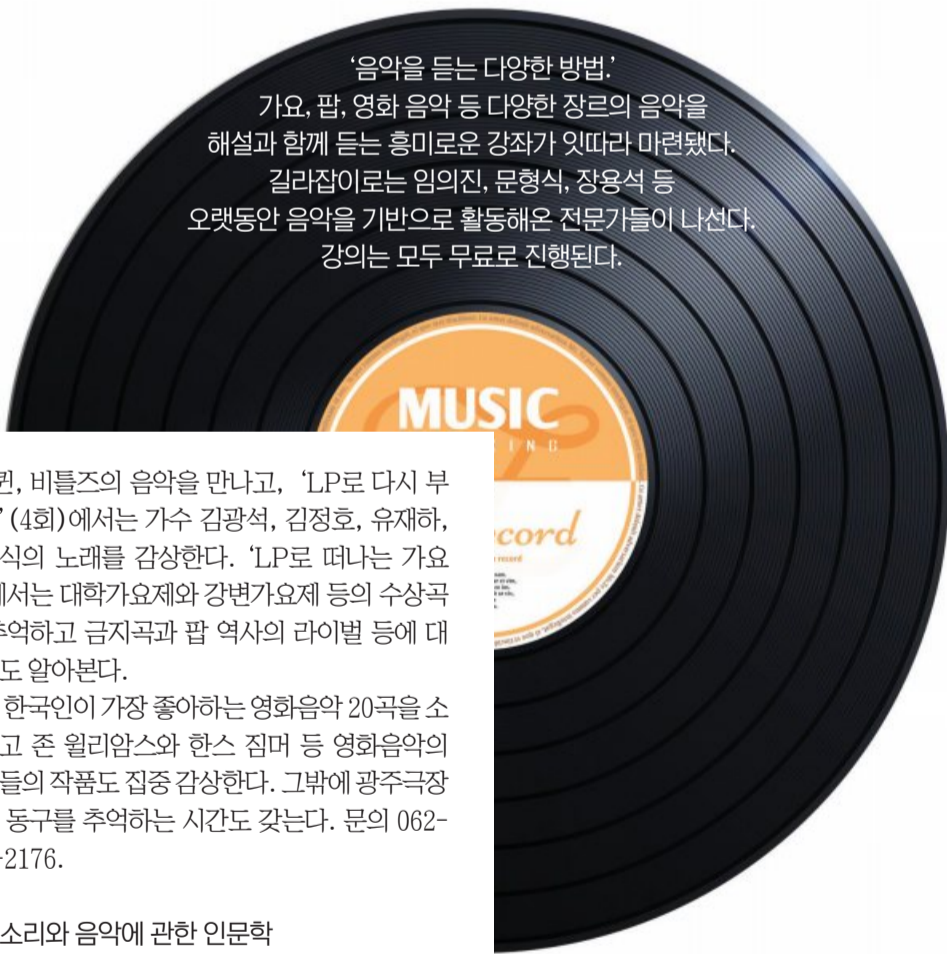
지난 2021년 창단한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으며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초청연주, 5·18 기억공간과 함께하는 광주 5·18 청소년오케스트라 가을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10-3606-366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해설과 감상으로

음악여행 떠나볼까

임의진·문형식·장용석 무료 강연



한국대중음악과 라디오 데이즈 월드뮤직 연구가이자 음반기획자인 임의진 메이클 관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대의 흐름 속 한국 대중 음악이야기를 풀어낸 강좌다. 광주 시립도서관과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협력 인문학 특강이다.

강의는 오는 3월7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낮12시) 무등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강의 프로그램은 '한국전쟁과 폐허 속에서 부르는 실랑이', '군인들의 행진곡과 공장의 라디오 소리', '한국 록의 시조와 통기타 청바지 시대', '전통가요 트로트와 풍진 인생의 매들리', '나미의 빌보드빌과 BTS의 화양연화' 등이다.

임의진은 스테디셀러 '여행자의 노래'를 비롯해 '쿠바여행', '노르웨이의 길' 등의 선곡음반을 발매했으며 EBS 세계테마기행 '월색의 땅 멕시코' 편 등에 출연했다. 또 음반사 Aulos Media 기획자로도 협력하고 있다. 062-613-7727.

다락방 음악여행

추억의 음악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토크 콘서트로 광주 동구 인문학당이 기획했다.

광주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 등으로 활동했던 문형식 씨가 강사로 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영상과 LP로 감상하고 사연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두 21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는 3월8일부터 7월26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시~6시) 동구 인문학당 분재 1층 동아리방과 2층 다락방에서 열린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팝의 레전드'에서는 아

바, 퀸, 비틀즈의 음악을 만나고, 'LP로 다시 부르기' (4회)에서는 가수 김광석, 김정호, 유재하, 김현식의 노래를 감상한다. 'LP로 떠나는 가요제'에서는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 등의 수상곡을 추억하고 금지곡과 팝 역사의 라이벌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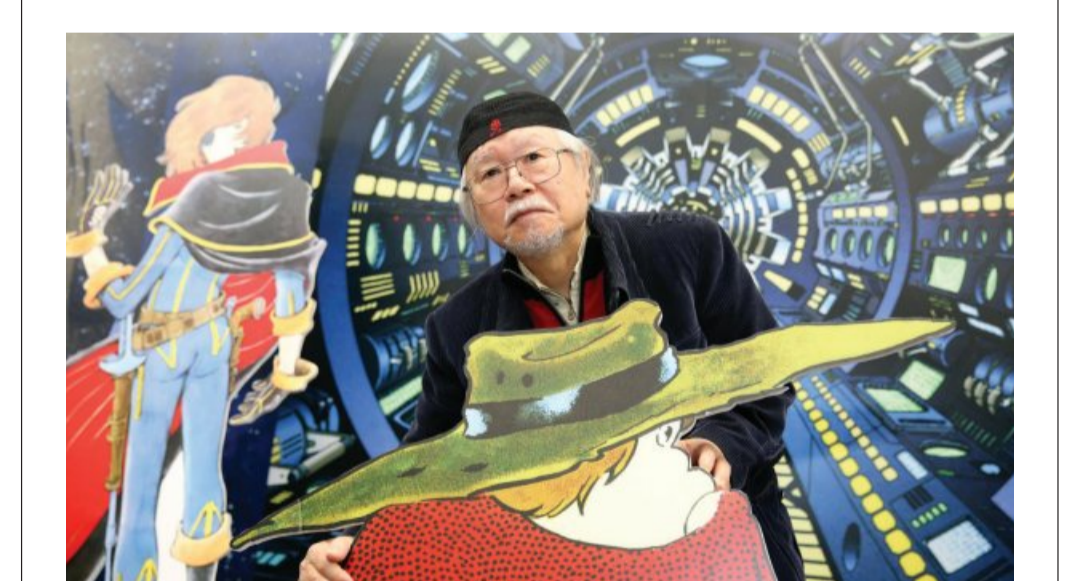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20곡을 소개하고 존 윌리엄스와 한스 짐머 등 영화음악의 거장들의 작품도 집중 감상한다. 그밖에 광주극장사와 동구를 추억하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 062-608-2176.

소리와 음악에 관한 인문학

시민자유대학 불학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장용석 독립문화기획자가 강연한다. 소리가 음악으로 발현하면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효과에 대해 탐구하고 음악은 어떻게 감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이고유익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강의는 3월7일~4월 25일(8주 과정)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7시~9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313호 현공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소리(Sound)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음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힐링의 영화음악', '음악감상의 이해' 등으로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은하철도 999' 영원한 우주여행 日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 별세

1980년대 TV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은하철도 999'의 원작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松本零士)가 지난 13일 급성 심부전으로 숨졌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향년 85세.

1938년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태어난 마쓰모토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54년 투고한 '꿈빛의 모험'이 '만화소년'에 연재되며 만화가로 데뷔했다.

마쓰모토는 우주 등을 테마로 한 장대한 상상과학(SF) 만화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의 최고 히트작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주간 '소년성'에 연재된 '은하철도 999'였다. 만화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TV 애니메이션은 물론 영화로도 제작됐다.

'은하철도 999'는 기계 백작에게 사랑을 잃은 테스다가 신비로운 여인 메텔과 함께 복수를 꿈꾸며 우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렸다.

그는 또 '천년여왕'과 '우주해적캡틴 하록', '우주전함 아마토' 등 다양한 인기 작품도 그렸다. 이 작품들은 SF 만화가로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1970~198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붐을 이끌었다. /연합뉴스